한국과학교육학회지 제18권 제1호, pp. 93~108(1998)

대한제국 후기부터 일제 식민지 초기(1906-1915년)까지 사용되었던 과학교과용 도서의 조사 분석

박종석 · 정병훈[1] · 박승재
(서울대학교) · [1](청주교육대학교)

A Study of School Science Textbooks which was used from 1906 to 1915 in Korea

Park, Jong-Seok · Chung, Byung-Hoon[1] · Pak, Sung-Jae
(Seoul National University) · [1](Ch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science textbooks used from 1906 to 1915 in Korea, which is often neglected in previous researches. By doing so, more practical and specific understanding of the science education during that period can be made. It was based on the historical achieves 「School Textbook List」(Vol. 4~9) which wa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Government General of Chosen and other sources. The results and conclusion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 ; ① The science textbooks which have been used from 1906 to 1915 in Korea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different tapes of books, either written in Chinese, or in Japanese, or in Korean. The names of science textbooks were Nature Study, Physics, Chemistry, Natural History, Hygienics, Physiology, Zoology, Botany, Astronomy, Physiography, Mineralogy, Geology. These names were much broader than those in curriculum settled by the government and rather correspond to the names of science textbooks in curriculum which settled by private schools. Therefore those science textbooks had been mainly used in private schools. Moreover almost all of the science textbooks published in Korea have started to appear after 1906. Since then many schools were newly opened and the number of students increased. It is possible to say that substantial science education in Korea established after 1906. ② Science textbooks from 1906 to 1915 printed in Korea were controlled in their use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Government General of Chosen. They were the main means of government regulations, supported by Private School Ordinance, Regulations for Official Examination of textbooks in 1908 and Law of Publication in 1909. According to the result of official examination, as the time went by under the Japanese ruling of Korea, the increasing number of science textbooks were getting banned. While the science textbooks had enjoyed more freedom than the other textbooks from the control by inspection of the Government General of Chosen, the situation has been significantly changed as Japan started to intensity the control of all kinds of textbooks in Korea.

Although there were a lot of copied science textbooks, 62 science textbooks printed in Korea, 72 Japanese science textbooks were used in Korea, and 40 Korean were to be engaged in science education compiling and copying science textbooks. There developments in science textbooks alone suggest that there were enormous

* 1998년 1월 12일 받음.

amount of potentials in Korean science education at that time. However, all of these effects and progresses were destroyed when the sovereign authority of Korea was lost to Japan in 1910.

Key words: 「School Textbook List」, science textbooks, Nature Study, Physics, Chemistry, Natural History, Hygienics, Physiology, Zoology, Botany, Astronomy, Physiography, Mineralogy, Geology, Private School Ordinance, Regulations for Official Examination of textbooks, Law of Publication, Potentials in Korean science education.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서구 과학이 한국의 근대 학교교육에 정규 교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895년 한성사범학교 관제로 시작되는 근대적 학교제도의 성립에서 비롯된다. 이때 학교에서 과학이 하나의 교과로 정착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것은 교과서였다. 따라서 당시에 출판되었던 교과서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과학교육의 구체적 실태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출판되어 1910년대에 학교에서 사용되었던 과학 교과서는 무려 130여종이 넘으며 수준과 내용의 범위, 그리고 과학교과의 종류에 있어서도 매우 폭넓다(Table 5 참조). 그러나 이것이 자주독립과 근대화에 대한 정열적 노력의 소산에 기인한다는 긍정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교육을 위한 사회적 기반은 대단히 미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대적 과학을 수용할 수 있었던 계층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당시의 과학 교과서가 일본이나 중국을 통하여 전래된 서구의 과학교육을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의미 있는 과학교육이었는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남는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한제국 후기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 하는 것은 이 시기에 도입된 과학교육에 비록 모순과 좌절된 노력이 있었지만, 자주적 과학교육의 움직임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을 통하여 수용되었던 이 시기의 과학교육이 현재 한국 과학교육의 기본적인 밑그림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한제국 후기의 과학교육은 우리에게 그 의미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과거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앞으로 국가적 과제에 알맞은 과학교육의 방향을 추구하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제국 후기부터 일제 식민지 초기에 사용된 과학교과용 도서의 목록과 그 출판 현황을 밝혀 당시의 과학교육에 대한 구체적 실태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초기 과학교육에서 기반의 전환이 있었던 대한제국 후기 과학교육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과학 교과서의 출판실태를 1906~1915년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과학 교과서 목록을 작성하고 당시의 출판 상황 및 사용 내역의 실태를 조사하는 데는 학부(學部) 및 총독부에서 발간한 『敎科用圖書一覽』의 4~9판을 기본 사료(史料)로 하고, 당시에 발간된 관계 자료와 이에 대한 연구 자료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하여 보완하였다(학부 1910-1, 1910-2; 총독부 1912, 1913, 1914, 1915).

Ⅱ. 『敎科用圖書一覽』의 발간 배경

『교과용도서일람』(이하 '일람')은 을사늑약 이후 학부에서 발간하기 시작하여 한일합방 이후에는 총독부에서 계속 발간한 것이다. 이 책자에는 당시 사용하던 교과용 도서 일체가 수록되어 있다. 교과용 도서의 조사는 1909년 3월 시작되었다. 조사 초기에는 수시로 조사되었는데, 1909년 한해에만도 네 차례나 조사되었다. 그 이후에는 1910~11년 그리고 1913~15년 등 대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결과는 6판의 경우 조사 후 1년 뒤에 일람으로 발간 것을 제외하고는 조사된 달이나 그 다음 달에 일람으로 발간되었다. 교과용 도서를 조사한 시기 및 일람을 발간한 시기는 Table 1과 같다.

학부 및 총독부에서 일람을 발간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는 이미 1894년에 발족한 학무아문과 이를 전신으로 1895년에 개편된 학부에 관한 규정, 1895년 공포된 '소학교령'과 1906년에 개정된 각종 학교령, 동년에 설치된 '교과서편찬위원회', 1908년의 '사립학교령', 1908년의 '학부편찬교과용도서발매규정', 1909년 제정된 '출판법'

Table 1 Surveyed time of textbooks and issued time of「教科用圖書一覽」

一覽(版)	조사시기	발간시기	발간처
1	隆熙 3年(1909) 3月 20日	미상	(學部)
2	隆熙 3年(1909) 5月 5日	미상	
3	隆熙 3年(1909) 6月 15日	미상	
4	隆熙 3年(1909) 12月 1日	隆熙 4년(1910) 1月	學部
5	隆熙 4年(1910) 7月 1日	隆熙 4년(1910) 7月	
6	明治44년(1911) 2月 28日	明治45년(1912) 1月	朝鮮總督府
7	大正 2년(1913) 2月 28日	大正 2년(1913) 3月	
8	大正 3년(1914) 10月 1日	大正 3년(1914) 10月	
9	大正 4년(1915) 12月 1日	大正 4년(1915) 12月	

등에 따라 교과서를 통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1908년 9월 '교과용도서검정규정'의 공포가 있었고, 교과용 도서는 이에 따라 검정을 받게 되었다. 학부에서 발간한 『한국교육의 현상(韓國教育ノ現狀)』(학부 1910-3)에 따르면, '교과용도서검정규정' 및 '사립학교령'이 실시된 이후 검정된 교과용 도서의 현황은 1910년 5월말 현재 Table 2와 같았다.

교과용 도서의 검정은 저(역)자의 출원에 관계되는 것으로, 출원을 하지 않아 검정을 받지 못한 교과용 도서를 학교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립학교령'에 기초해 해당 학교에서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만 했다. 1910년 교과용 도서의 인가 현황은 Table 3과 같았다(학부 1910-3).

이들 검정 현황 및 사용인가 현황의 교과용 도서 중, 수신, 국어, 한문, 지리 등 사회과학 도서는 불인가된 것이 많은 데 비하여 과학 및 실업 등 사상과 관계가 적은 자연과학 관련 교과는 인가율이 비교적 높다. 당시 일제가 장악하고 있던 학부의 검정 방침에 대해 음으로 양으로 논란이 심해 "학부에서 애국심을 억압하고, 한국의 국민성을 멸시하는 것이 아닌가"(학부 1910-3) 하는 평

Table 2 Status of official approval about textbooks(The end of May, 1910)

部數 \ 種別		修身	國語	漢文	歷史	地誌 地文	理化	數學	博物 生理	體操	農工商	教育	日語 其他	法制 經濟	辭書	計
檢定出願部數		12	16	13	16	20	8	6	14	1	2	1	5	2	1	117
內譯	同認可部數	3	4	3	6	7	7	4	12	1	1	1	3	2	1	55
	同不認可部數	5	2	2	3	5	0	1	0	0	0	0	0	0	0	18
	同調査中	4	10	8	7	8	1	1	2	0	1	0	2	0	0	44

Table 3 Status of approval usage about textbooks(The end of May, 1910. The same textbooks petitioned by schools was calculated one)

部數 \ 種別	修身	佛書	基督教書	國語	漢文	日語	英語其他	歷史	地理	理化	數學	博物生理	體操	唱歌	農商工	法制經濟	教育	簿記	圖畫	習字	手工	家政	計
認可部數	4	4	15	9	22	18	48	7	24	42	60	32	4	2	42	17	6	7	11	3	1	2	330
不認可部數	8	0	0	13	10	10	1	12	8	0	0	0	0	1	1	1	3	0	0	0	0	0	68
合計	12	4	15	22	32	28	49	19	32	42	60	32	4	3	43	18	9	7	11	3	1	2	448

까지 나왔다. 학부는 이에 대해 불인가를 받은 교과서들은 내용 전체가 정치에 관한 의견으로 가득 찼거나, 내용이 조잡하고, 체제 또한 교과서로서 적당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학부, 1910-3). 그렇지만, 교과용 도서의 검정 및 인가 방침은 상당히 엄중하게 이루어져서, 耶蘇敎의 성서에 이르기까지 심의해 인가의 수속을 받도록 하는 정도였다. 교과용 도서에 대한 검정 및 인가의 심사는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방침아래 이루어졌다(高橋濱吉, 1927).

① 정치적 방면
- 한국과 일본의 관계 및 양국의 친교를 방해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없는가
- 한국 국시를 어지럽히고 질서와 안녕을 해쳐 국리민복을 무시하는 언설이 없는가
- 한국 고유의 국정에 어긋나는 기사가 없는가
- 기교해서 오류있는 애국심을 고취하는 일이 없는가
- 배일사상을 고취하거나 특히 한국인이 일본인 및 다른 외국인에 대하는 악감정을 포함하는 기사나 어조가 없는가

② 사회적 방면
- 음잡하거나 기타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언사나 기사가 없는가
- 사회주의 기타 사회평화를 저해하는 기사가 없는가
- 미신에 속하는 기사가 없는가

③ 교육적 방면
- 기재사항에 오류가 없는가

Table 4 Details and contents of 「敎科用圖書一覽」

발간처	발간연도	본문목차	부록
學部	1910년(4판)	學部編纂敎科用圖書 學部檢定敎科用圖書 學部印刷敎科用圖書 學部認可敎科用圖書 學部不認可敎科用圖書 檢定無效敎科用圖書 內部大臣發賣頒布禁止圖書	學部編纂敎科用圖書發賣規程 學部編纂敎科用圖書發賣人一覽
	1910년(5판)	學部編纂敎科用圖書 學部檢定敎科用圖書 學部認可敎科用圖書 學部不認可敎科用圖書 檢定無效及檢定不許可敎科用圖書 內部大臣發賣頒布禁止圖書	學部編纂敎科用圖書發賣規程 學部編纂敎科用圖書發賣人一覽
朝鮮總督府	1912년(6판)	朝鮮總督府出版敎科用圖書 檢定敎科用圖書 認可敎科用圖書 不認可敎科用圖書 檢定無效及檢定不許可敎科用圖書 發賣頒布禁止圖書	朝鮮總督府出版敎科用圖書發賣人一覽
	1913년(7판)	朝鮮總督府編纂敎科用圖書 檢定敎科用圖書 檢定無效及檢定不許可敎科用圖書 認可敎科用圖書 不認可敎科用圖書 發賣頒布禁止圖書	敎科用圖書發賣規程 敎科用圖書發賣人一覽 敎科用圖書檢定規程
	1914년(8판) 1915년(9판)	朝鮮總督府編纂敎科用圖書 朝鮮總督府檢定敎科用圖書 檢定無效及檢定不許可敎科用圖書 朝鮮總督府認可敎科用圖書 不認可敎科用圖書	發賣頒布禁止圖書 朝鮮總督府出版敎科用圖書發賣規程 朝鮮總督府出版敎科用圖書發賣人一覽 敎科用圖書檢定規程

· 정도, 분량 및 재료 선택은 교과서가 목적하는 바에 적당한가
· 편술 방법은 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위와 같은 방침으로 조사된 교과용 도서에 대해 검정 및 인가 등을 결정하였고, 그 결과가 일람으로 작성되었다. 일람을 작성한 목적은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대한 제약의 의미가 강해 교과용 도서를 인가와 불인가, 검정과 검정무효 및 불허가 등으로 분류하여 그 사용을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한 일람은 1910년의 4판, 5판과 1912년의 6판, 그리고 1913년의 7판과 1914년의 8판, 1915년의 9판으로 그 내역과 목차는 Table 4와 같다. 일람에는 교과용 도서를 학부(총독부) 편찬도서, 검정 도서, 혹은 학부 인쇄 도서, 그리고, 학부(총독부) 인가와 불인가 도서, 검정 무효 및 불허가 도서, 발매반포 금지 도서로 분류하였으며, 부록으로 학부(총독부) 편찬 교과용 도서 발매 규정과 교과용 도서 발매인 명단, 교과용 도서 검정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일람의 목차로부터 그 내용과 분류 순서가 판마다 약간씩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람을 발간하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한 틀이 있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교과용 도서의 검정에 관한 규정은 1908년 시행된 '교과용도서검정규정'에 근거하며, 인가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 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1910년에 학부에서 발간된 일람에는 "私立學校에서用ᄒᆞᄂᆞᆫ敎科用圖書ᄂᆞᆫ學部의編纂ᄒᆞᆫ者이나又ᄂᆞᆫ學部大臣의檢定을經ᄒᆞᆫ것 中으로擇ᄒᆞᆷ이可ᄒᆞᆷ"을 명시하였다. 1912~15년에 총독부가 발간한 일람에는 '私立學校敎科用圖書ニ關スル規則'[1] 중 9조와 10조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 중 사립학교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칙 9조는 "私立學校ノ敎科用圖書ハ朝鮮總督府ノ編纂シタルモノ又ハ朝鮮總督ノ檢定ヲ經タルモノヲ用ウヘシ", 즉 "私立學校의敎科用圖書ᄂᆞᆫ朝鮮總督府의編纂ᄒᆞᆫ것이나又ᄂᆞᆫ朝鮮總督의檢定을經ᄒᆞᆫ것을用ᄒᆞᆷ이可홈. 前項의敎科用圖書가無ᄒᆞᆫ때ᄂᆞᆫ朝鮮總督의認可를受ᄒᆞ야前項以外의圖書를用ᄒᆞᆷ을得홈"(사립학교규칙 제9조)이다. 이렇게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는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것이나 총독의 검정을 거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런 점을 보아도,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엄격히 감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부 혹은 총독부의 '검정'과 '인가'에 대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즉 사립학교에서 교과서를 사용할 때는 오직 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것에만 한정된다. 또한 사립학교 교과서는 총독부 편찬도서나 검정을 거친 도서는 사용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도서가 없을 때는 총독부로부터 사용하고자 하는 도서에 대한 인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총독부의 편찬이나 검정을 받은 책은 "別로히認可節次를要치아니ᄒᆞ고申告만ᄒᆞᆷ"으로 충분하다. 말하자면 총독부가 편찬한 것이나 검정한 도서는 자동적으로 인가된 것과 같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되고 그 이외의 도서는 인가 청원의 절차를 받아 인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었다. 여기서 인가 청원하여 인가를 받은 도서는 "該當學校에만效力이有한者인즉他私立學校에서此를使用코자ᄒᆞᄂᆞᆫ境遇에ᄂᆞᆫ其時마다…朝鮮總督의認可를受ᄒᆞᆷ이可"하다.

Ⅲ. 1910-1915년에 조사된 과학교과용 도서목록과 분석

1. 과학교과용 도서목록

일람에 기재된 과학교과용 도서를 이과(통합 교과 유형의 교과서; 이과, 이화학), 물리, 화학, 생물(박물학, 식물학, 동물학, 생리학, 위생학 등), 지구과학(천문학, 지문학, 광물학, 지질학 등)으로 나누고, 서명과 출판연도, 저자나 편역자, 발행인, 발행소, 그리고 승인유형과 책 수를 정리해 목록으로 작성하였다(Table 5).

2. 과학교과용 도서목록의 분석

과학 교과용 도서목록을 토대로 과학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결과, 교과 및 출판지별 현황, 그리고 저자별 현황 등을 Table 6과 같이 분석하였고, 전체적인 추이를 판단하기 위해 이를 Fig. 1 및 Fig. 2와 같이 나타내었다.

조사된 전체 도서의 수는 일람의 판이 거듭할수록 점차 증가한다. 이에 비해 인가 받은 교과용 도서의 수는 줄어든다(Fig. 1 참조).

Fig. 1에서 일람의 8판에서 조사된 도서가 줄어든 것처럼 나타나는 것은 자료 중 일부가 손실되어(pp. 47-58)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불인가의 뒷부분과 발매반포금지도서 항목에 해당된다. 일람의 7판과 9판을 참조하면 이 부분은 대략 100여 종에 해당된다. 일람의

1) 사립학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칙, 1911년 10월 20일 朝鮮總督府令 제114호 私立學校規則拔抄.

Table 5 Catalogue of suveyed science textbooks from 1910 to 1915년

1. 종합교과 유형의 교과서: 이과, 이화학 등

책이름	출판년도	서기	저자/편자/역자	발행인	발행소	승인유형[1]	책수
植物學	光緖 30년	1904	史砥爾(著), 潘愼文(譯)	-	美華書館	1913-15년 총독부불인가	1
理科書(日文)	(隆熙 2년)[2]	(1908)	學部 (編輯局)	-	學部 (編輯局)	1910년 학부편찬*[3], 1912-13년 총독부출판	2
最新高等小學理科書	권1 隆熙2-4-1재[4]; 권2 2-7-28재; 권3 2-5-27; 권4-2-6-23	1908	玄采	玄采	-	1910년 학부인가*, 1912-15년 총독부인가	4
普通學校理科書生徒用卷1,2	(明治 44년)[5] (교사용 편찬중, 출판시기 미정)	(1911)	朝鮮總督府編纂	-	朝鮮總督府	1913-15년 총독부편찬	2
改正理科敎科書	권1 明治44-9-15재; 권2 44-9-23재; 권3 45-2-10; 권4 45-6-26	1911-12	玄采	玄采	-	1913년 검정%[6], 1914-15년 검정무효‡[7]	4
新撰理科敎科書	大正 3-5-27(권1,2 정정 5판, 권3,4 정정 재판, 검정일大正3-6-5)	1914	玄采	玄采	大東書院	1914-15년 총독부검정	4
最新理科敎科書(植物及動物ノ部)[8]	(大正 3년말까지 출판예정)	(1914)	朝鮮總督府編纂	-	朝鮮總督府	1914-15년 총독부편찬	1
最新理科敎科書(物理,化學及鑛物ノ部)	(大正 3년말까지 출판예정)	(1914)	朝鮮總督府編纂	-	朝鮮總督府	1914-15년 총독부편찬	1
改訂理科敎科書(理化編)	明治 42년3월10일 13판	1909	佐藤禮介, 根岸福彌	-	六盟館	1912-15년 총독부인가	1
尋常小學理科書(第五,六學年用)	5학년 明治 43년11월24일; 6학년 明治 43년12월23일	1910	文部省	-	文部省	1912-15년 총독부인가	2
改訂理科敎科書(博物編)	明治 43년5월7일 19판	1910	佐藤禮介, 根岸福彌	-	六盟館	1912-15년 총독부인가	1
普通學校理科敎授掛圖卷1解說書	前14매 大正3-5-7; 後12매 大正3-6-20(검정일3-7-25)	1914	小川茂雄	小川茂雄	有鄰館	1914-15년 총독부검정	-
普通學校理科掛圖卷1冊(38枚)	제5매 大正3-1-25; 제8,10-12,19재21,32매 大正3-6-25; 기타 大正3-6-36	1914	吉江治平	吉江治平	集英堂	1914-15년 총독부검정	1
普通學校理科掛圖卷2冊(39枚)	大正3-7-25(검정일 大正3-10-9)	1914	吉江治平	吉江治平	集英堂	1915년 총독부검정	1
新編理化學	-	--	李[illegible]	-	學部印刷	1910년 학부인가*	1
初等理化學	-	-	關本幸太郎	-	普成館	1910년 학부인가	-
初等理化學	光武 11년7월30	1907	李[illegible], 陳[illegible]	-	普成館	1910년 학부인가*, 1912-15년 총독부인가	1
新撰理化學	隆熙 2년3월1일	1908	朴晶東	金相萬	-	1910년 학부인가*, 1912-15년 총독부인가	1
改訂新撰(近)理化學[9]	隆熙 4년2월5일 재판	1910	朴晶東	金相萬	廣學書舖	1910년 학부검정, 1912년 총독부검정, 1913년 검정%, 1914-15년 검정무효‡	1
新撰實驗理化學敎科書	隆熙 4년5월10일	1910	李[illegible]	李[illegible]	廣韓書林	1910년 학부검정, 1912년 총독부검정, 1913년 검정%, 1914-15년 검정무효‡	1
中學理化示敎	明治 29년10월30일	1896	池田菊苗	-	金港堂書籍株式	1910년 학부인가*, 1912-15년 총독부인가	1
初等理化敎科書	明治 40년5월27일	1907	田丸卓郞, 池田菊苗	-	開成館	1910년 학부인가, 1912-15년 총독부인가	1
理化學綱要	明治 43년3월7일	1910	櫻井寅之助, 倉林[illegible]	-	三省堂	1913-15년 총독부인가	1
近世理化示敎	明治 44년6월5일 18판	1911	和田猪三郞	-	富山房	1910년 학부인가*, 1912-15년 총독부인가	1

1) 학부 및 총독부가 도서를 분류한 유형에는 '편찬', '출판', '인가', '검정', '검정무효', '검정불허가', '불인가', '발매반포금지' 등으로 구분된다. 과학교과서의 경우 '발매반포금지' 처분을 받은 도서는 없다.
2) 『일람』에는 출판연도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학부편찬 『이과서』 원문에는 도쿄 三省堂에서 인쇄하고 1908년에 발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일합방 이후에는 『普通學校學徒用理科書』라는 이름으로 출판된다 (아래 주석 4를 참조할 것).
3) * 표시는 1910년 1월에 발간된 『일람』의 4판과 같은 해 7월에 발간된 5판에 공통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동일한 인가사항을 나타낸다.
4) '권1 隆熙 2-4-1재'는 제1권이 隆熙 2년 4월 1일에 재판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연도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 책은 학부편찬 『이과서』와 동일한 책으로서 조선총독부 인쇄국에서 1911년 3월 초판되고 같은 해 8월에 재판, 1912년 3월에는 3판으로 발간되었고, 1914년까지 교사용 도서는 발간되지 않았다.
6) % 표시는 검정 도서이지만 1910년 10월 1일 이전에 검정을 받은 것이므로 교과용도서검정규정 부칙 3항에 의해 1914년 3월 31일 이후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단 효력을 상실하는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검정을 출원하여야 한다.
7) ‡ 표시는 불인가를 받은 도서 중 당분간 사용이 허용되는 '특별한 단서조항'이 붙은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특별한 단서조항이란 사립학교용 교과서로 불인가되었기 때문에 결코 사용해서는 아니되지만 "[illegible]에 [illegible]하였스니 [illegible]의 [illegible] 가급적으로 것을 [illegible]"하여, 이들은 인가를 이미 받은 학교에서만 총독부에서 허가하는 교과서로 대체될 때까지 당분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학교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검정무효 및 불허가의 경우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8) 9판에는 最新理科敎科書(植物,動物及人體生理ノ部)로 되어있다.
9) 5판에는 改正新選으로 되어있고, 6-9판에는 改訂新撰으로 되어있다.

2. 물리학 교과서

책이름	출판년도	서기	저자/편자/역자	발행인	발행소	승인유형	책수
小物理學	-	-	學部	-	學部印刷	1910년 학부인가*, 1912년, 13, 14, 15년도 총독부불인가	1
新撰小物理學	光武 10년6월30일	1906	國民敎育會	吳相奎, 劉臣善	-	1910년 학부인가*, 1912-14년 총독부인가	1
初等用簡明物理教科書	隆熙 元년9월4일; 隆熙 4년1월20일	1907,10	崔在學	崔在學	唯一書館, 安峴書舖[10]	[illegible]	1
初等物理學教科書	隆熙 2년10월31일	1908	陳熙星[11]	韓興履	-	1910년 학부인가*, 1912-15년 총독부인가	1
中等物理學教科書	隆熙 2년8월10일	1908	閔大植	-	徽文館	1910년 학부인가*, 1912-15년 총독부인가	1
近世物理學	隆熙 3년2월15일	1909	長谷川鉚四郎(編), 崔雲興(譯)	-	大韓書院	1912-13년 총독부인가	1
改訂中等物理學教科書	隆熙 4년6월20일	1910	閔大植	閔大植	徽文館	1912년 총독부인가, 1913년 검정%, 1914-15년 검정무효, 검정불허가	1
物理學教科書	-	-	板橋盛俊	-	三省堂	1910년 학부인가	1
物理教科書	-	-	理科研究會	-	元元堂	1910년 학부인가	1
酒井物理學教科書	-	-	酒井佐保	-	富山房	1910년 학부인가	3
新撰物理學教科書	明治 35년12월15일 (상 7판, 하 6판)	1902	酒井佐保	-	富山房	1912-13년 총독부인가	1
新撰物理學教科書	明治 36년3월20일 재판	1903	關本幸太郎, 小倉鉦次	-	大日本圖書株式	1910년 학부인가, 1912-13년 총독부인가	1
言文一致物理學	明治 37년1월20일 재판	1904	富山房編輯局	-	富山房	1910년 학부인가*, 1912-13년 총독부인가	1
近世物理學教科書	明治 38년2월17일 재판	1905	本多光太郎	-	開成館	1912-15년 총독부인가	1
普通教育物理學新教科書	明治 38년11월18일 6판	1905	田丸卓郎	西野虎吉	開成館	1910년 학부인가*, 1912-15년 총독부인가	1
近世物理學教科書	明治 39년9월27일 28판	1906	中村清二	-	丸善書店, 富山房	1910년 학부인가, 1912-13년 총독부인가	1
新式物理學教科書	明治 41년1월21일 13판	1908	本多光太郎, 田中三四郎	內田展, 內田老鶴圃	-	1910년 학부인가, 1912-15년 총독부인가	1
計算理論物理學解義	明治 42년10월20일	1909	山下安太郎	-	有明堂	1912-13년 총독부인가	2
高等女學校用物理教科書	明治 42년2월2일 4판	1909	高等女學校理科研究會	瀬川光	-	1912-15년 총독부인가	1
訂正物理學教科書	明治 43년2월14일 6판	1910	板橋盛俊	-	三省堂	1912-13년 총독부인가	1
應用氣象學教科書	明治 44년2월15일 6판	1911	神戶昌平	-	六盟館	1913년 총독부인가	1
新式實用物理教科書	大正 元년12월2일	1912	野田 貞	-	開成館	1914-15년 총독부인가	1
新訂物理學教科書	大正 2년11월2일	1913	板橋盛俊	龜井忠一	-	1915년 총독부인가	1

3. 화학 교과서

책이름	출판년도	서기	저자/편자/역자	발행인	발행소	승인유형	책수
新編化學教科書	-	-	劉文煥	-	-	1910년 학부인가*	-
小化學	-	-	-	-	博文館	1910년 학부인가*	1
化學教科書	隆熙 元년5월12일	1907	洪仁杓	-	私立普成中學校	1910년 학부인가*, 1912-13년 총독부인가	1
新編化學	隆熙 元년12월30일	1907	安鍾和	-	普成館	1910년 학부인가*, 1912-14년 총독부인가	1
工業化學(書)[12]	明治 40년4월28일 3판	1907	內藤靜	-	三友書院	1910년 학부인가*, 1912-13년 총독부인가	1
近世小化學	隆熙 2년5월15일	1908	閔大植	-	徽文館	1910년 학부인가*, 1912-13년 총독부인가	1
新撰(選)化學教科書[13]	隆熙 2년11월25일	1908	劉文相	韓興履	-	1910년 학부인가*, 1912-15년 총독부인가	1

10) 安峴書舖에서 隆熙 元년 9월 4일에 출판한 것은 인가 받은 것이며 40전이다. 唯一書館에서 隆熙 4년 1월 20일 출판한 것은 최재학의 발행으로 30전이고 검정과 검정무효 처분을 받은 것이다.

11) 『초등물리학교과서』의 원본에는 陳熙星이 번역한 것을 安鍾和이 校閱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발행소는 외진사이다.

12) 4, 5판에는 공업화학, 6, 7판에는 '공업화학서로 되어있다. 저자는 일본인이지만 국한문혼용체로 되어있고, 관립농상공학교에서 사용되었다.

13) 『일람』의 1910년도 4판, 5판에는 '新選'으로, 1912년도 6판 및 1913년도 7판과 1914년도 8판에서는 '新撰'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選과 撰을 서로 오기한 동일한 서적으로 판단된다.

改訂近世化學	隆熙 3년5월31일	1909	長谷川[illegible]四郎(編),崔[illegible](譯)	-	大韓醫院	1912-13년 총독부인가	1
新撰中等無機化學	隆熙 4년7월20일	1910	柳鎭永, 具滋興	李鍾楨	-	1914-15년 총독부불인가	1
化學敎科書	-	-	吉田彦六郎	-	金港堂	1910년 학부인가	-
化學	-	-	久原躬弦	-	-	1910년 학부인가*	1
化學敎科書	明治 35년2월23일 3판	1902	高松豊吉	-	大日本圖書株式	1910년 학부인가, 1912-13년 총독부인가	2
中等化學敎科書	明治 37년12월26일 3판	1904	池田菊苗	-	金港堂	1910년 학부인가, 1912-15년 총독부인가	3
新撰化學敎科書	明治 37년2월20일 재판	1904	岡本平太郎, 小倉鎭次	-	大日本圖書株式	1912-13년 총독부인가	1
普通敎育化學敎科書	明治 38년12월20일 8판	1905	龜高德平	西野虎吉	開成館	1910년 학부인가*, 1912-15년 총독부인가	1
近世化學敎科書	明治 38년3월21일 5판	1905	池田菊苗	-	開成館	1912-15년 총독부인가	1
化學應用最新製造法	明治 38년1월15일	1905	淺田忠順	-	青木嵩山堂	1910년 학부인가, 1912년 총독부인가	1
農用化學	明治 40년2월28일	1907	渡部太郎, 佐藤益助	-	金港堂	1912-13년 총독부인가	1
初等化學敎科書	明治 40년6월13일	1907	池田菊苗	-	開成館	1914-15년 총독부인가	1
中學新式化學	明治 41년12월28일	1908	近藤淸次郎	小林竹雄	-	1910년 학부인가, 1912-15년 총독부인가	1
高等女學校用化學鑛物敎科書	明治 42년2월1일 4판	1909	高等女學校理科硏究會	瀨川光行	-	1912-15년 총독부인가	1
新式實用化學敎科書	明治 45년7월7일	1912	龜高德平	-	開成館	1914-15년 총독부인가	1

4. 생물학 관련 교과서: 박물학, 식물학, 동물학, 생리학, 위생학 등

책이름	출판년도	서기	저자/편자/역자	발행인	발행소	승인유형	책수
新撰小博物學	隆熙 元년11월20일	1907	兪星濬, 金相天	兪星濬, 金相天	廣學書鋪	1910년 학부검정*, 1913년 검정%, 1914-15년 검정무효	1
新撰小博物學	光武 11년7월5일	1907	國民敎育會	-	國民敎育會	1912-15년 총독부인가	1
新編博物學	光武 11년5월5일	1907	李弼善	-	普成館	1910년 학부인가*, 1912-15년 총독부인가	1
最新博物學敎科書	隆熙 4년8월25일	1910	李觀熙	李觀熙	中央書館	1912년 총독부검정, 1913년 검정%, 1914-15년 검정무효§	1
植物學	隆熙 2년7월20일 초판	1908	玄采	玄公廉	-	1910년 학부인가, 1912-15년 총독부인가, 1913-15년 검정무효§	1
植物學敎科書	隆熙 2년5월29일	1908	尹泰榮	-	普成館	1910년 학부인가*, 1912-15년 총독부인가	2
初等植物學	隆熙 2년8월15일	1908	鄭寅琥	鄭寅琥	玉虎書林	1910년 학부검정*, 1912년 총독부검정, 1913년 검정%, 1914-15년 검정무효	1
식물학(植物學)	大正 2년6월14일	1913	安愛理	-	耶蘇敎書會	1914-15년 총독부인가	1
最近植物學	大正 3년4월10일	1914	崔鳴煥, 金東赫	盧益亨	-	1914-15년 총독부인가	1
修正最近植物學	大正 4년4월10일	1915	金東赫	盧益亨	-	1915년 총독부인가	1
植物學問答	-	-	富山房編輯局	-	富山房	1910년 학부인가*	1
新編植物敎科書	明治 40년12월11일	1907	千葉敬止, 香月喜六	-	興文社	1913-15년 총독부인가	1
改訂最新植物學敎科書	明治 42년3월3일 7판	1909	伊藤篤太郎	-	三省堂	1910년 학부인가, 1912-15년 총독부인가	1
近世植物學敎科書	明治 42년1월25일 70판	1909	大渡忠太郎	西野虎吉	開成館	1910년 학부인가*, 1912-15년 총독부인가	1
植物界新敎科書	明治 44년3월26일 6판	1911	齋藤賢之	-	六盟館	1910년 학부인가*, 1912-15년 총독부인가	1
中等植物學綱要	大正 元년10월30일	1912	志賀 實	-	元元堂	1914-15년 총독부인가	1
高等女學校用生物敎科書(植物之部)	大正 2년3월30일	1913	高等女學校理科硏究會	-	元元堂	1914-15년 총독부인가	1
普通敎育植物學敎科書	大正 2년2월2일 10판	1913	藤井健次郎	-	開成館	1914-15년 총독부인가	1
新編植物學敎科書	大正 3년12월12일	1914	三宅驥一, 野原茂六	-	明治書院	1915년 총독부인가	1

동물학(動物學)	光武 10년	1906	ベアード(이니엘에이베아드)[14]	-	-	1910 학부인가**[14], 1912-15년 총독부인가	1
新編動物學	隆熙 2년6월	1908	申海容	高裕相	匯東書館	1910년 학부검정*, 1912년 총독부검정, 1913년 검정%, 1914-15년 검정무효	1
初等動物學	隆熙 2년7월30일	1908	鄭寅琥	鄭寅琥, 洪淳珏	-	1910년 학부인가*, 1912-15년 총독부인가	1
普通動物學敎科書	隆熙 2년8월20일	1908	普成館編輯部	-	普成館	1912-15년 총독부인가	1
初等動物學敎科書	明治 43년12월5일	1910	鄭寅琥	鄭寅琥	-	1913년 검정%, 1914-15년 검정무효	1
中等動物學	明治 43년10월10일	1910	朴重華	李鍾楨	-	1912-15년 총독부인가	1
最近動物學	大正 4년4월15일	1915	金東赫	盧益亨	-	1915년 총독부인가	1
生徒用動物學	-	-	富山房編輯部	-	富山房	1910년 학부인가*	1
動物界新敎科書	明治 37년5월7일	1904	後藤嘉之	-	大盟館	1910년 학부인가*, 1912-15년 총독부인가	1
近世動物學敎科書[16]	明治 41년3월8일 11판	1908	丘淺次郎	西野虎吉	開成館	1910년 학부인가*, 1912-15년 총독부인가	1
女子新撰生物界敎科書(動物界)	明治 44년2월25일	1911	山田新, 加藤駒吉	石井清	-	1912-15년 총독부인가	1
高等女學校用生物敎科書(動物之部)	明治 45년3월1일 8판	1912	高等女學校理科硏究會	-	元元堂	1914-15년 총독부인가	1
女子用動物敎科書	明治 45년3월21일	1912	濱幸次郎, 河野齡藏	-	光風館	1915년 총독부인가	1
中等動物學綱要	大正 元년10월30일	1912	栗野宗太郎	-	元元堂	1914-15년 총독부인가	1
最新動物學敎科書	大正 元년9월23일 3판	1912	谷津直秀	-	開成館	1914-15년 총독부인가	1
生理學	-	-	洪鍾厚	-	-	1910년 학부인가*	-
전테공용문답	-	-	푸와이드[17]	-	-	1910년 학부인가	1
中等生理學(解說附圖)	光武 11년6월5일	1907	金夏鼎	-	普成館	1910년 학부인가*, 1912-15년 총독부인가	2
生理學初卷	隆熙 2년	1908	ベアード[18]	-	-	1912-15년 총독부인가	1
生理學初卷	隆熙 3년2월15일(검정일 大正 3년5월28일); 隆熙 4년2	1909.10	安愛理(안익니)	安愛理	耶蘇敎書院, 大韓聖敎公會	1910년 학부인가**,학부검정, 1912, 13%, 14, 15년 총독부검정	1
新編生理學敎科書	隆熙 3년1월10일	1909	安商浩	韓應履	-	1910년 학부인가*, 1912-15년 총독부인가	1
生徒用書人身生理學	-	-	富山房編輯局	-	富山房	1910년 학부인가*	1
人體解剖圖	-	-	吉永虎雄	-	-	1910년 학부인가*	1
新編生理敎科書	明治 30년9월13일	1897	坪井次郎	-	金港堂	1912년 총독부인가	1
近世生理學敎科書	明治 39년1월5일 9판	1906	丘淺次郎	-	開成館	1910년 학부인가, 1912-15년 총독부인가	1
中等生理衛生學	光武 11년7월25일; 隆熙 2년10월5일 재판; 明治 44년2월15일	1907.8.11	任璟宰	徽文館	徽文館	1910학부검정*, 인가*, 1912총독부검정,인가, 1913검정%, 인가, 1914검정출원기각, 1914-15검정무효	1
初等衛生學敎科書	隆熙 元년10월8일; 隆熙 3년11월25일 3판	1907.9	安鍾和	金相萬	廣學書舖	1910학부검정*, 학부인가*, 1912총독부검정, 총독부인가, 1913검정%, 인가, 1914-15검정무효	1
初等生理衛生學大要	隆熙 3년9월30일	1909	安鍾和	安泰瑩	廣德書館	1910년 학부검정*, 1912년 총독부검정, 1913년 검정%, 1914, 15년 검정무효	1
中等生理衛生敎科書	明治 38년2월18일 재판	1905	三島通良	-	金港堂書籍株式	1910년 학부인가*, 1912-13년 총독부인가	1
普通生理衛生學	明治 39년9월2일 4판	1906	大森千藏	-	松榮堂	1910년 학부인가*, 1912년 총독부인가	1
高等女學校用生理衛生敎科書	明治 43년9월1일 14판	1910	高等女學校理科硏究會	瀨川光行	-	1912-15년 총독부인가	1
生理衛生新敎科書	明治 44년3월26일 7판	1911	後藤嘉之	-	六盟館	1912-15년 총독부인가	1
中等生理衛生綱要	大正 元년10월30일	1912	中等理科硏究會	-	元元堂	1914-15년 총독부인가	1
中等敎育生理衛生敎科書	大正 元년11월25일 재판	1912	丘淺次郎	-	開成館	1914-15년 총독부인가	1

14) 1910년 4판에 기록된 '이니 엘 에이 베아드'는 Annie L.A. Baird를 의미한다.

15) ** 표시는 「일람」의 4판에서만 나타난 인가사항이다. 따라서 *나 **와 같은 표식이 없는 1910년도 인가사항은 5판에만 등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16) 1910년도 4판 「일람」에는 동일 저자 丘淺次郎, 동일 책명 「近世動物學敎科書」에 발행자가 각각 西野虎吉, 三木佐助로 된 두 책을 별도로 인가하였으나, 1912년도 6판과 1914년도 8판에서는 발행자 西野虎吉에 대한 책만 인가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책이라고 하더라도 승인을 신청한 판본이 다르면 인가도 별도로 하였던 사례로 비추어 볼 때, 1910년도 판에서 인가한 두 책은 동일한 저자에 의한 같은 도서로서 판본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추정된다. 도쿄서적주식회사에서 1979년 발행한 「교과용도서목록」에 의하면 '三木佐助 발행'은 1899년 오사카에서 발행한 책이고 '西野虎吉의 開成館'은 1902년(수정 3판)부터 도쿄에서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17) 푸와이드는 1892년부터 1903년까지 이화학당의 당장을 지낸 Lulu E. Frey이다.

18) 숭실학교 초대교장을 지냈던 W.M. Baird

5. 천문·지질·지리 관련 교과서: 천문학, 광물학, 지질학, 지문학 등

책이름	출판년도	서기	저자/편자/역자	발행인	발행소	승인유형	책수
계오문답(啓悟問答)	隆熙 元년	1907	キャンベル夫人(캠벨부인)	-	耶蘇教書會	1912-13년 총독부인가	1
天文學	隆熙 2년1월20일	1908	鄭永澤(編述)	-	普成館	1912-15년 총독부인가	1
中等鑛物界教科書	隆熙 元년8월31일	1907	閔大植	徽文館	徽文館	1910년 학부검정*, 1912년 총독부검정, 1913년 검정%, 1914-15년 검정무효	1
新式鑛物學	隆熙 2년7월10일	1908	普成館編輯部	-	普成館	1910년 학부인가, 1912-15년 총독부인가	1
鑛物學及地質學	-	-	富山房編輯局	-	富山房	1910년 학부인가*	1
地質學教科書	-	-	横山又次郎	-	富山房	1910년 학부인가*	1
普通教育鑛物界教科書	明治 40년10월22일 7판	1907	神保小虎	-	開成館	1910년 학부인가, 1912-15년 총독부인가	1
近世鑛物界教科書	明治 41년12월7일 7판	1908	脇水鐵五郎	-	開成館	1912-15년 총독부인가	1
新撰鑛物學教科書	明治 41년11월22일 3판	1908	脇水鐵五郎	西野虎吉	開成館	1910년 학부인가*, 1912-15년 총독부인가	1
中等教育鑛物教科書	明治 45년1월25일 재판	1912	脇水鐵五郎	-	開成館	1914-15년 총독부인가	1
地文學教科書	-	(1914)[19]	朝鮮總督府編纂	-	朝鮮總督府	1914-15년 총독부편찬	1
中等地文學	隆熙 元년8월20일	1907	尹泰榮	-	普成館	1910년 학부인가*, 1912-13년 총독부인가	1
新撰地文學	光武 11년7월15일; 隆熙 3년5월30일 재판	1907,9	閔大植	-	徽文館	1910년 학부검정*, 1912년 총독부검정, 1914-15년 검정무효, 검정불허가	1
近世地文學教科書	明治 37년2월14일 6판	1904	山上萬次郎	-	富山房	1910년 학부인가*, 1912-13년 총독부인가	1
普通教育地文學教科書	明治 39년3월6일 3판	1906	山崎直方	-	開成館	1913년 인가	1
初等地文學教科書	明治 40년10월15일 재판	1907	山崎直方	-	開成館	1912-13년 총독부인가	1

19) 『일람』에는 발행연도가 나와있지 않으나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것은 1914년에 발간되었고, 일본어로 쓰여져 있다.

1~3판을 습득하지 못해 좀더 완전한 결과를 얻을 수 없지만 Fig. 1에서 보듯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면서 통제 당하는 도서수가 더욱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일제는 교과용 도서에 대한 통제를 식민지 지배의 일부 전략으로 사용하였고, 이 같은 조치는 교육에서 있어서 다른 어떠한 통제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일제가 추구하는 식민지 지배의 방향으로 교육을 유도하였던 것이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Fig. 2의 인가율로부터도 판단할 수 있다. 특히 1913년이 되면 인가율이 45%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 이후로는 더욱 심각해진다(Fig. 2 참조).

과학교과용 도서의 경우도 전체 도서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어, 조사되는 도서 수가 점차 증가되지만 인가받은 도서의 절대적인 수는 줄어든다(Fig. 3 참조).

비록 과학교과에 대한 인가율이 일반 도서에 비해 높아 평균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사된 도서수가 증가하는 것에 반해 인가수가 감소하는 경향은 교과용 도서의 성격과 종류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점차 인가가 까다롭고 철저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반드시 교과서 내용의 사상적인 통제가 강화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교과의 경우 예를 들면, 1910년에 『新撰小物理學』, 『小物理學』, 『初等物理學敎科書』는 모두 학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지만, 1912~14년의 일람에는 『新撰小物理學』, 1912~15년의 일람에는 『初等物理學敎科書』가 총독부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小物理學』은 1912~15년에 총독부로부터 불인가를 받았다. 당시에 출판되었던 또 다른 물리교과서 중에서 민대식이 편역하고 휘문관에서 1910년 발행한 『改訂中等物理學敎科書』는 1914~15년 총독부로부터 검정무효와 검정불허가를 받게 되었으며, 최재학이 번역하고 유일서관과 안현서관에서 각각 1910년에 발행하였던 『初等用簡明物理敎科書』는 1914~15년 총독부에서 검정무효를 받은 바 있다. 한일합방 이후 총독부로부터 검정무효, 검정불허가, 불인가 처분을 받은 교과서들은 일반적으로 민족의식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역사와 국어, 사회교과서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시의 과학교과서에는 내용에 있어서 민족적 사고를 고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적었으며 더욱이 거의 모든 과학 교과서가 일본 교과서를 그대로 혹은 요약 번역한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과학 교과서가 불인가 내지 검정무효, 검정불허가 등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히 내용만의 문제로 보는 것보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

Table 6 Result of official approval about science textbooks

一覽(版)	分類	全體圖書合計	理科	理化學	物理	化學	博物	生理衛生	衛生	生理	動物	植物	地文	天文	鑛物	地質	科學圖書 計
4	調査圖書	330	2	6	8	9	2	6	2	5	7	5	2	0	3	1	58
	學部編纂	8	1														1
	學部檢定	19					1	2	1		1	1			1		7
	學部印刷	13		1	1												2
	學部認可	233	1	5	7	9	1	4	1	5	6	4	2		2	1	48
	學部不認可	43															0
	檢定無效	6															0
	內務大臣發賣禁止	8															0
5	調査圖書	439	2	9	14	14	2	5	2	9	6	7	3	0	5	1	79
	學部編纂	12	1														1
	學部檢定	33		2	1		1	2	1	1	1	1	1		1		12
	學部認可	303	1	7	13	14	1	3	1	8	5	6	2		4	1	66
	學部不認可	70															0
	檢定無效及不許可	13															0
	內務大臣發賣頒布禁止	8															0
6	調査圖書	557	5	7	18	15	4	7	2	6	8	6	4	2	5	0	89
	總督府編纂	12	1														1
	檢定	46		2	2		2	2	1	1	1	1	1		1		14
	認可	276	4	5	15	15	2	5	1	5	7	5	3	2	4		73
	不認可	149			1												1
	檢定無效及不許可	12															0
	發賣頒布禁止	61															0
7	調査圖書	642	8	8	20	14	4	6	2	6	9	8	4	2	5	0	96
	總督府編纂	31	3														3
	檢定	48	1	2	2		2	2	1	1	2	1			1		15
	檢定無效	9										1					1
	檢定不許可	14															0
	認可	291	4	6	16	14	2	4	1	5	7	6	4	2	4		75
	不認可	169			2												2
	發賣頒布禁止	80															0
8	調査圖書	574	12	8	13	10	4	8	1	5	12	13	3	1	6	–	96
	總督府編纂	49	3										1				4
	檢定	16	3							1							4
	檢定無效	53	1	2	2		2	2	1		2	2	1		1		16
	檢定不許可	24			1			1					1				3
	認可	246	4	6	9	9	2	5		4	10	11		1	5		66
	不認可	186	1		1	1											3
	發賣頒布禁止	–															–
9	調査圖書	733	12	8	15	10	4	8	2	5	14	5	3	1	6	0	93
	總督府編纂	49	3										1				4
	檢定	17	4							1							5
	檢定無效	53	1	2	2		2	2	1		2	2	1		1		16
	檢定不許可	24			1			1					1				3
	認可	276	4	6	10	9	2	5		4	12	3		1	5		61
	不認可	194			2	1			1								4
	發賣頒布禁止	120															0

* 8판의 자료는 손실된 부분(pp.47-58)이 있는데, 불인가의 뒷부분과 발매반포금지도서 항목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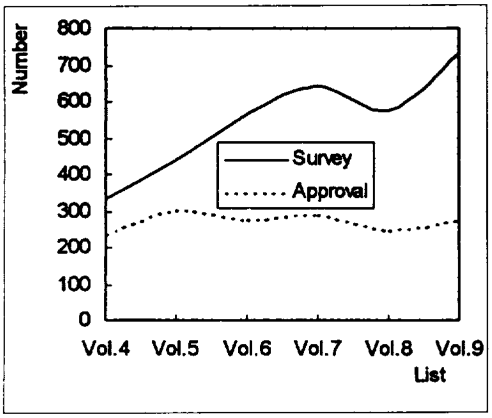

Fig. 1 Result of survey and approval about all sub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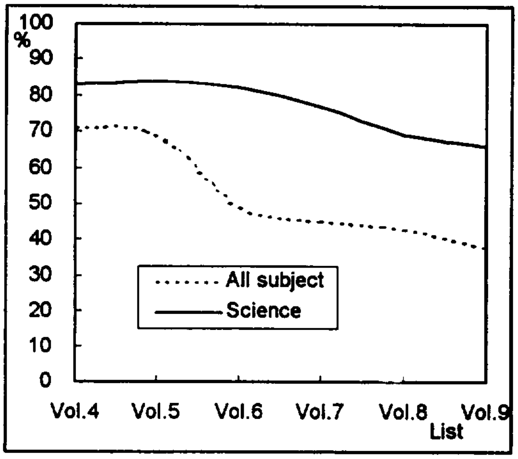

Fig. 2 Approval percentage of all subjects and science textbooks.

하다.

대한제국 시기에 발간되었던 「관보」에 실린 학부의 교과서에 대한 공시의 내용이나 당시 학부에서 추진하던 교과서 출판의 방향으로 보았을 때 학부에서 발간한 「소물리학」에는 여러 가지로 특이한 점이 드러난다. 「소물리학」에는 삽화가 모두 누락되어 빈 칸으로 남아있고 단지 그림의 번호만 표시되어 있는 등 학부에서 발간한 것으로 보기에 대단히 부실하게 편찬되었다는 점이다. 반면 실제로 번역된 내용의 질로 보자면 적어도 1914년까지 인가를 받아 사용되었던 「신찬소물리학」보다 결코 부실하게 번역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같은 원전으로부터 번역한 분량으로 볼 때 「소물리학」이 「신찬소물리학」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원전에 좀 더 충실하게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1912~15년 '총독부 불인가' 혹은 '검정무효', '검정불허가'라고 명시된 도서 중 「소물리학」을 포함한 일부 도서는 "과거에는 학부에서 인가하였지만 시대가 변하여 불인가로 조치하였으며, 현재 이를 사용하도록 인가받았던 학교에서는 당분간 사용을 계속할 수 있되 총독부에서 편찬하거나 검정한 교과서, 혹은 이것이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가 받은 교과서로 변경할 것"(일람 1912-15년)이라는 유보조항을 담고 있다. 따라서 「소물리학」이 불인가를 받게 된 것은 내용이 사상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체제가 교과서로서 충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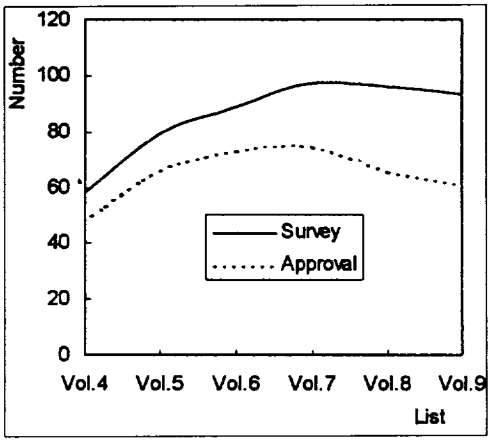

Fig. 3 Result of suvey and approval about science textbooks.

1910년부터 1915년에 발간된 일람만을 토대로 작성된 목록에 의하면 1895년부터 1905년 사이에 학교에서 사용된 과학 교과용 도서는 한국에서 출판된 것이 없고, 모두 일본에서 출판된 것이다. 1905년 이전에 吳聖根의 「신찬이과초보」(1902)와 민대식의 「근세소화학」(1903), 진희성의 「초등물리학교과서」 등의 교과서가 출판되었다는 의견이 있다(이면우, 1997). 그러나 일람에는 민대식의 「근세소화학」과 진희성의 「초등물리학교과서」는 모두 1908년에 발간된 것으로 나와있다. 또한 서울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진희성의 「초등물리학교과서」 원전에도 1908년에 발간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오성근의 교과서는 1902년에 발간된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일람을 근거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를 예외로 한다.

1906년 이후 과학 교과서가 한국에서도 출판되기 시작하여, 1907~1908년에는 절정에 이르고 있다(Fig. 4). 이는 1905년 이후 일제의 조선 침략 의도가 노골화되면서 교육을 통한 구국 운동으로 많은 학교들을 설립하였고, 이들 학교에서 교과서의 필요성이 증가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Fig. 5).

교과별 출판 현황을 보면 우선 교과명이 理科, 理化學, 物理, 化學, 博物, 生理衛生, 衛生, 生理, 動物, 植物, 地文, 天文, 鑛物, 地質 등 정부에서 정한 관제나 학교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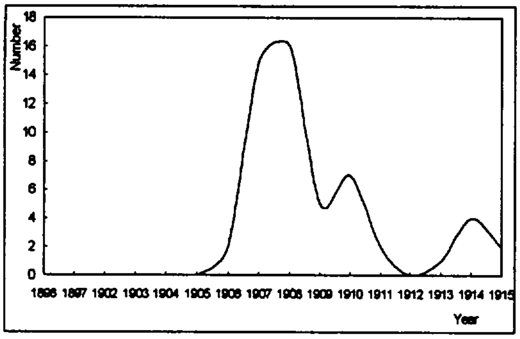

Fig. 4 Number of science textbooks published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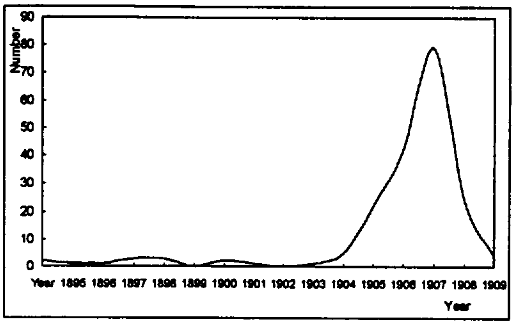

Fig. 5 Number of private schools.

의 이과, 박물, 물리, 화학 등에 비하여 매우 다양하다. 이 같은 교과명은 오히려 사립학교의 규정에 제시된 이름과 동일하며 따라서 이들 과학 교과서가 사립학교에서 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발간된 이들 교과 중 가장 많은 교과는 생물에 관련된 교과서(동물, 식물, 생리위생, 생리학, 위생: 41.9%)이다. 생물 교과서가 가장 많이 발간된 이유는 여기에 생리위생 관련 교과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당시 사회에 가장 필요한 도덕으로 청결, 위생, 공덕 등을 꼽고 있었던 점에서 찾을 수 있다(高橋濱吉, 1927). 다른 한편으로는 물리나 화학보다 우리 인체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쉽고, 흥미롭게 관심을 가질 수 있던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과, 물리, 화학, 지구과학 순으로 출판되었다. 이과는 한국에서 출판된 것이 일본으로부터 도입한 것보다 많으며, 물리와 화학은 모두 일본에서 출판되어 한국에 유입된 도서가 한국에서 출판된 것보다 많다. 생물과 지구과학은 한국에서 출판된 것과 일본에서 출판된 것 중 한국에 도입된 도서수가 비슷하다 (Table 7).

과학 교과용 도서의 저자 및 편자별 출판 상황은 Table 8과 같다. 한국에서 출판된 62종의 책 중 한국인 개인이 저술한 것이 69.3%, 단체에서 출판된 것은 12.9%, 출판사에서는 3.2% 출판되었다. 일본에서 출판되어 한국에 도입된 도서 중에서 일본인 개인이 저술한 것은 82.7%, 단체에서 출판된 것은 10.7%, 출판사에서는 6.7% 출판되었다. 한국에서 출판된 경향에서 개인의 역할이 거의 70여%에 이른다는 것은 그만큼 과학교육의 자생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단체가 출판한 경우를 보면, 한국에서는 조선총독부 및 학부에서 6종, 국민교육회 2종, 일본은 高等女學校理科硏究會 5종, 그리고 文部省, 理科硏究會, 中等理科硏究會에서 각각 1종씩 출판되었다. 그리고 출판사로는 한국의 경우 보성관편집부에서 2종, 일본은 富山房編輯局에서 5종이 출판되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한국에서 출판된 일본인의 저서들이다. 關本幸太郎[2]의 「初等理化學」은 보성관에서 출판되었으며, 內海靜의 「工業化學書」는 삼우서원에서 출판되었다. 長谷川龜四郎[3]이 편술한 「近世物理學」과 「改訂近世化學」은 대한의원의 교원이었던 崔奎翼이 번역하여 대한의원에서 출판되었다.

2) 京城中學校敎諭, 大田中學校長, 釜山中學校長을 지냄.

3) 漢城高等學校講師, 京城大韓醫院敎授, 官立漢城師範學校敎授, 京城高等普通學校, 平壤高等普通學校敎諭, 平壤女子高等普通(長)을 지냄.

Table 7 Status by subjects and publication area of science textbooks according to year

時期 \ 敎科	理科		物理		化學		生物		地球科學		合計		
	韓國	日本	韓國	日本	韓國	日本	韓國	日本	韓國	日本	韓國	日本	全體
1896		1										1	1
1897								1				1	1
1902				1		1						2	2
1903				1								1	1
1904				1		2		1		1		5	5
1905				2		3		1				6	6
1906			1	1			1	2		1	2	4	6
1907	1	1	1		3	2	6	1	4	2	15	6	21
1908	3		2	1	2	1	7	1	2	2	16	5	21
1909		1	1	2	1	1	3	2			5	6	11
1910	2	3	1	1	1		3	1			7	5	12
1911	2	1		1				3			2	5	7
1912				1		1		7		1		10	10
1913				1			1	2			1	3	4
1914	3	3					1	1			4	4	8
1915							2				2		2
未詳	2		1	3	2	2	2	4	1	2	8	11	19
合計	13(21.0)	10	7(11.3)	16	9(14.5)	13	26(41.9)	27	7(11.3)	9	62	75	137
(%)	24(17.4)*		23(16.7)		22(15.9)		53(38.4)		16(11.6)		138*		

* 1904년에 중국에서 출판된 이과 도서(『격물질학』)가 1권 있음.

Table 8 Status of science textbooks by authors and compilers

出版地 \ 著譯者	韓國人	日本人	團體	出版社	日本人編, 韓國人譯	西洋人	西洋人著, 韓國人譯	未詳	合計
韓國	43	2	8	2	2	3	1	1	62
日本	–	62	8	5	–	–	–	–	75

Ⅳ. 결론 및 연구과제

대한제국기 한국에서 과학교육이 이루어진 구체적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당시 각급 학교에서 실제로 사용하였던 과학교과용 도서의 출판 실태를 분석하였다. 과학교과용 도서의 출판 실태 분석을 위해 학부 및 총독부에서 출판된 『교과용도서일람』 4~9판을 사용였다. 일람으로부터 과학교과용 도서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검인정 결과, 교과 및 출판지별, 저자별 출판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검인정에 대한 것을 보면, 일람의 판수가 증가될수록 조사된 도서의 수가 증가하는데 비해 인가되는 도서수가 줄고 있다. 이것은 교과의 내용과 상관없이 전체적인 경향이며, 교과서에 대한 통제가 강해지는 것을 나타낸다. 출판지별 결과는 1905년까지는 한국내에서 출판된 것이 없어 일본의 과학 교과서를 도입해서 사용하였으나, 1906년이 되면 한

국내에서 과학 교과서가 출판되고, 1907~8년에는 절정을 이룬다. 그만큼 한국내에서도 과학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1905년 을사늑약의 체결로 위기의식을 느낀 당시 지식인들은 교육을 통해 국가의 자립과 부국강병을 성취하고자 했고, 과학교육 또한 같은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과학에 대한 중요성을 일반 국민에게 고취시키기 위해 국문 혹은 국한문 혼용의 교과서들을 출판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에 일제는 한국에서 발간된 과학 교과서의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가하였다. 1908년의 사립학교령과 교과용도서검정규정, 그리고 1909년의 출판법은 교과서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한국에서 발간된 62종의 과학 교과서 중 사용금지를 당한 것은 18종인데 2종은 불인가, 13종은 검정무효 그리고 3종은 검정무효 및 검정불허가 처분을 중복으로 받았다. 이는 과학 교과가 학부나 총독부의 검열로부터 다른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지만 일제가 점차 교과서 통제를 강화하면서 과학 교과서에도 통제를 가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에서 발간된 과학 교과서로 이과, 이화학, 물리, 화학, 박물, 생리, 위생, 생리위생, 동물, 식물, 천문, 지문, 광물, 지질 등 다양한 이름을 가졌다. 이들 교과서명은 정부에서 정한 교육과정 속의 과학 교과명인 이과, 박물, 물리, 화학보다 범위가 넓었고, 오히려 각종 사립학교에서 정한 과학 교과명에 일치하였다. 따라서 이때 발간된 과학 교과서는 사립학교에서 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화기 과학 교과서 중 한국에서 발간된 것은 주로 1906년 이후부터 등장하며 이 때 애국계몽운동의 영향으로 많은 학교가 설립되고 교육을 받는 대상도 증가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실질적인 과학교육은 1906년 이후에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과별로는 생물 교과서의 출판이 두드러지며, 다음으로 이과, 화학, 물리, 지구과학 순서로 출판되었다. 특히 생물 교과서는 생리위생 관련 교과서가 많이 출판되어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회에 가장 필요한 도덕으로 청결, 위생, 공덕 등을 강조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근대 과학교육은 1906년에 이르러 실질적인 체제가 확립되면서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는데 이 시기에 비록 번역된 도서가 많이 있었지만 동시대적 지식을 담고 있었던 62종의 과학 교과서가 한국에서 발간되었고, 72종에 달하는 일본의 과학 교과서가 도입되어 사용되었으며, 40여명의 한국인이 과학 교과서를 번역 또는 편술하는 등 한국 과학교육에 종사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과학교육의 자생적인 성장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1910년 일제에 주권을 상실 당하면서 그 성장력을 박탈 당하고 말았다.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는 좀더 구체적으로 한국 과학교육의 성립과정 등을 밝히기 위해 여기에 제시한 도서목록 중 일부 한국 출판 도서의 내용 분석과 일본 출판 도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출판 도서 중 일본 출판 도서의 번역본 분석과 일본 출판 도서 중 서구 도서의 번역본을 추적 분석하고 이들 결과를 비교하여 한국에서 성립된 과학교육의 국제적 관련성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

적 요

본 연구에서는 대한제국 후기부터 일제 식민지 초기에 사용된 과학교과용 도서의 목록과 그 출판 현황을 밝혀 당시의 과학교육에 대한 구체적 실태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의 초기 과학교육에서 기반의 전환이 있었던 대한제국 후기 과학교육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과학 교과서의 출판실태를 1906~1915년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과학 교과서 목록을 작성하고 당시의 출판 상황 및 사용 내역의 실태를 조사하는 데는 학부(學部) 및 총독부에서 발간한『敎科用圖書一覽』의 4~9판을 기본 사료(史料)로 하고, 당시에 발간된 관계 자료와 이에 대한 연구 자료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하여 보완하였다.『교과용도서일람』은 을사늑약 이후 학부에서 발간하기 시작하여 한일합방 이후에는 총독부에서 계속 발간한 것이다. 이 책자에는 당시 사용하던 교과용 도서 일체가 수록되어 있다.

한국에서 1906년부터 1915년 사이에 사용된 과학 교과서는 이과, 이화학, 물리, 화학, 박물, 생리, 위생, 생리위생, 동물, 식물, 천문, 지문, 광물, 지질 등 다양한 이름을 가졌다. 이들 교과서명은 정부에서 정한 교육과정 속의 과학 교과명인 이과, 박물, 물리, 화학보다 범위가 넓었고, 오히려 각종 사립학교에서 정한 과학 교과명에 일치하였다. 따라서 이때 발간된 과학 교과서는 사립학교에서 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화기 과학 교과서 중 한국에서 발간된 것은 주로 1906년 이후부터 등장하며 이때 애국계몽운동의 영향으로 많은 학교가 설립되고 교육을 받는 대상도 증가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실질적인 과학교육은 1906년 이후에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화기 한국에서 발간된 과학 교과서는 학부 또는 총독부로부터 그 사용에 대한

통제를 받았다. 1908년의 사립학교령과 교과용도서검정규정, 그리고 1909년의 출판법은 교과서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한국에서 발간된 62종의 과학 교과서 중 사용금지를 당한 것은 18종인데 2종은 불인가, 13종은 검정무효 그리고 3종은 검정무효 및 검정불허가 처분을 중복으로 받았다. 이는 과학 교과가 학부나 총독부의 검열로부터 다른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지만 일제가 점차 교과서 통제를 강화하면서 과학 교과서에도 통제를 가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의 근대 과학교육은 1906년에 이르러 실질적인 체제가 확립되면서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는데 이 시기에 비록 번역된 도서가 많이 있었지만 동시대적 지식을 담고 있었던 62종의 과학 교과서가 한국에서 발간되었고, 76종에 달하는 일본의 과학 교과서가 도입되어 사용되었으며, 40여명의 한국인이 과학 교과서를 번역 또는 편술하는 등 한국 과학교육에 종사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과학교육의 자생적인 성장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1910년 일제에 주권을 상실 당하면서 그 성장력을 박탈당하고 말았다.

참고문헌

강윤호(1985), 개화기의 교과용도서, 교육출판사.
국민교육회(1906), 신찬소물리학.
김흥수(1990), 한국근대역사교육연구, 삼영사.
손인수(1980), 한국개화교육연구, 일지사.
신용하(1974),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 설립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제10집, 한국사연구회.
이면우(1997), 한국 근대교육기(1876~1910)의 지구과학교육,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종국(1991), 한국의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총독부(1912), 교과용도서일람 6판.
총독부(1913), 교과용도서일람 7판.
총독부(1914), 교과용도서일람 8판.
총독부(1915), 교과용도서일람 9판.
최재학(1910), 초등용간명물리학 교과서, 유일서관.
학부(1910-1), 교과용도서일람 4판.
학부(1910-2), 교과용도서일람 5판.
학부(1910-3), 韓國教育ノ現狀.
학부(연도미상), 소물리학.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 한국교육사료집성 Ⅳ.
高橋濱吉(1927), 朝鮮教育史考, 帝國地方行政學會.
稻葉 雄(1984), 東京高等師範學校と韓國・朝鮮の教育(その1) 茗溪會關係者の半島進出-明治・大正期-, 昭和58年度筑波大學學內プロジェクト研究報告書.